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물꼬'

전주시, 상위계획·주민 의견 충돌로 사업 추진 난항... 끈질긴 노력 끝 하천기본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 통과

전주시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8년 만에 상위계획 변경으로 행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는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원당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사업이 확정돼 이듬해인 2019년부터 설계에 착수했으나, 상위계획인 원당천 하천기본계획과의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계획은 전주천 합류부 인근의

복개암거를 철거하고 개거(뚜껑이 없는 수로)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원당천 인근에 대성동 한옥마을 주차장이 조성돼 매월 2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에도 매월 2000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들은 만약 기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암거를 철거할 경우 시내버스와 대형 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우려된다며 당초 정비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

로 수년째 사업이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로변경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기존 복개암거를 철거하는 대신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확대 재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시는 이를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와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마침내 변경안 승인 결정이 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걸림돌이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번 심의의 조건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보상계획공고/하천공사시행계획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유인환 전주시 하천관리과장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드디어 사업 추진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면서 "이상이후로 인한 극한 호우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공사 착각

서곡교~홍산교 구간 상습 정체 해소 위해 추진... 5월 중 마무리 예정

전주시는 시민들의 상습 정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곡교~홍산교 구간 교통개선사업'의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곡교 사거리에는 은고울로와 홍산로, 강변로, 세내로가 연결되는 전주시의 핵심 교차도로, 최근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하가지구 등 배후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온 구간이다.

이에 시는 실시계획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024년 5월부터 공사를

특히 시는 차도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도 축소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수목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관목을 비롯한 모든 수목에 대해서는 현장 인근으로 빠짐없이 이식하고, 이식 후에도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수목 이식과 경계석 설치 등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4월 내에 차도 전면 재포장을 완료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인도 포장 및 교통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서곡교 일대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해소돼 출·퇴근길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은 공사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면 재포장 공사 기간에는 통행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추진

전주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사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발맞춰 오는 4월부터 공무원 대중교통(버스) 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의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이 먼저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운동용 전주시장 관한대행 부시장이 첫 주자로 참여해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하게 된다.

이후 매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5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음 참여자 5명을 지정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울러 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정시 출퇴근하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참여를 일성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바꾸는 피지컬 AI' 미래 비전 제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의 산업생태계 완성하고 시민 일상 혁신할 것"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미래 첨단 기술을 지역 산업과 시민의 일상에 접목하는 '전주를 바꾸는 피지컬 AI'와 '내 삶을 바꾸는 스마트 AI' 중심의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3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꿈꾸는 AI 도시는 제조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집안일을 도우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손에 잡히는 기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 시민의 일상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공약으로는 30만 평 규모의 '피지컬 AI-7 밸리' 조성을 내세웠다.

연구와 실증, 인재 양성이 집적된 첨단 산업형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 직주라(職住樂) 환경을 갖춘 정주형 혁신 벨트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전주-완주-김제의 특장점을 연계한 클러스터 특화산업 벨트를 구축해 전북 전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에도 사활을 건다. 도심융합특구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네이버, SK 등 굴지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전주형 AI 판도'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전북대, 전주대, 카이스트 등과 협력해 청년 인재를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미래 첨단 기술을 지역 산업과 시민의 일상에 접목하는 '전주를 바꾸는 피지컬 AI'와 '내 삶을 바꾸는 스마트 AI' 중심의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피지컬 AI 산업생태계 구축을 총괄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최고 전문가를 과격 채용할 예정이다.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생활체감형 스마트 AI 도시'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AI 음식물처리기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근력 보조 슈트와 스마트 지팡이를 보급한다. 중 주민센터 거점별로는 'AI 소통센터'를 구축해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선다.

스마트 복지와 모빌리티 혁신도 속도도를 낸다. '에이전틱 AI' 기술을 도입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첨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재난과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주요 혼잡 구간의 AI 신호 제어시스템, 한옥마을 자율주행 셔틀, 전주역세권 철도·BRT·버스 AI 통합 환승 체계 등을 전면 도입해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기술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다뤄보고 20년 해묵은 지역 난제를 풀려면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 전주시장이 되어 위대한 전주 대변력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반부패·청렴시책 공유 회의 가져

전주시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장 사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운동용 전주시장 관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다짐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청렴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시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

부서 청렴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장 부재 상황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부서 내 기강을 잡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동용 전주시장 관한대행 부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예비후보 등록 등으로 지휘부의 변화는 있지만, 시민을 향한 청렴 서비스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시정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